

청년 생생지락을 위한 취업 및 고용대책, 주관적 인식에 대한 대학유형별 분석 - 노동패널 청년층 부가조사를 중심으로

한 정 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으로 곧 다가올 미래의 일자리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다. 한편에는 정보화 지식사회를 지나면서 경제사회문화가 급변하고, 경제위기를 수시로 겪는 현실에서 저성장의 고착화, 교육 없는 성장, 청년층 고용절벽과 미스매치, 과학력, 스펙준비를 위한 과도비용 등 위험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9차년도 청년층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청년층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유형으로 대상자를 선별하여 취업과 고용대책, 주관적 인식을 교차분석, 차이분석, 회귀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인적자원의 교육적 측면에서 교육투자자에 대한 청년층 노동성을 재확인하고, 청년층 취업현실과 희망일자리 기대 차이에 청년취업의 주요한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고등교육에서 1.2년 교육차이의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차이를 전문대학분야 보다 교육투자에 대한 노동생산성과 소득차이로 설명하기에는 사회적 변수가 많다. 주관적 인식이 청년층 좌표로 설명되는 이러한 차이를 총체적으로 연결해 볼 수 있는 정부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청년층 활력지수를 높이는 생생지락의 본질적인 의미를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용어 : 취업준비, 첫 일자리, 고용정책, 청년활력

I. 서론

취업문제에 직면한 청년세대는 노동력이 가장 활성화 되어 있고 이전 세대에 비해 교육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투자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노동의 양적·질적 변화에 대한 기여는 담보상태에 있다.

안정적인 1차 노동시장은 감소하고 고용의 질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2차 노동시장의 증가로 비정규직화, 잦은 이직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최고의 스펙도 더 이상 취업이 보장되지 않는 청년고용절벽 현상, 일자리 미스매치 등 고용문제 심화와 공공기관, 공기업, 대기업 취업준비 실패 현상도 지속적인 노동 및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실정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25-29세 경제활동 참가율은 76.7%로 회원국 35개국 가운데

*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고용전문관

- 1 -

칠레와 공동 31위를 기록했으며, OECD 평균 80.5%에 못 미치고 있다. 30대 초반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한국의 30-34세 경제활동 참가율은 77.7%로 순위는 32위로 OECD 평균 82.0%보다 낮았다 이와 반대로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평균 14.5%보다 2배 이상 높은 31.5%에 달했다. 즉 청년층은 취업 시장 진입이 어렵고, 고령층은 일자리를 떠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한국일보, 2017.9.12).

청년층이 생업에 종사하며 행복한 가정과 사회경제에 이바지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안정을 이루어 줄게 살 수 있도록 활력지수를 높이는 삶을 청년층 생생지락(生生之樂)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생업에 종사하기 위한 청년층 취업문제는 생애진로설계에 전반적 영향을 미친다.

취업준비를 위해서는 취업과정에서 필수적인 입사지원과 면접을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에 따라 자격증 취득, 외국어 능력개발, 해외어학연수, 학점관리, 외모관리, 창업준비 등의 행동을 포함 한다. 전문대학생의 취업준비활동에서는 국가 자격증 수가 많을수록, 면접기술이나 이력서작성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졸업 전 후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가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다(최선미, 2015). 4년제 대학생들은 취업준비 활성화 방향에 학생들의 적극적인 취업의지 고취와 어학연수 기회확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기초학력증진의 취업역량강화를 필요로 한다(지계용, 한진영, 2016).

청년층 취업의사는 청년층 미취업자가 희망하는 고용형태와 일자리규모, 수입조사를 통해 취업의 눈높이 차이를 찾아 볼 수 있다. 근무 관련 특성은 교육수준 대비 업무 난이도, 업무의 전공 일치도, 자기발전의 추구, 고용의 안정성, 일의 자율성과 권한, 직장 내 인간관계가 만족해야 할 것이다. 직무환경과 근무조건에 불만족할수록 이직의향을 가지고 이직 준비를 하게 된다. 청년 취업자의 이직 준비는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찾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 보아야 한다(김경범, 이주현, 노진원, 권영대, 2016). 또한 대학생들은 전공과 매치되고 학력수준과 일치하는 괜찮은 일자리를 찾지만 노동시장은 비정규직의 일자리가 더 많은 실정이다.

첫 번째 일자리는 청년층이 서비스요자에서 공급자로 전환되어 경제적 활동에 진입하는 사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첫 일자리에 안착하기 위해 오랜 시간 취업 준비와 스펙 쌓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첫 일자리에서의 성공 비율이 높지 않다(임다희, 조인형, 2014). 직무확인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직무만족은 탈진을 가져올 수 있다.

청년고용정책은 정부가 고용문제완화를 위해 고용대책을 마련하여 정책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층의 관심과 참여가 효과적 정책성과, 고용문제해결을 위한 효율성을 판단해 볼 수 있다.

주관적 인식으로 청년활력지수는 청년층 삶의 질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척도로 작용된다. 한국사회에 대한 노력기대와 사회만족감 인식, 긍정적 자존감이나 사회적 지원에 대해 주변과 자기긍정 존중감, 갈등관계 정도에 대해 스스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조사가 의하면 청년 77.3%가 열심히 일해도 지금보다 더 나은 계층으로 올라가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86.1%가 우리사회는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가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보아 특히, 노력에 대한 기대와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았다(이상호, 2016).

- 2 -

대학생은 자신에게 유리한 취업조건을 위해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다. 적성과 전공의 불일치, 사회 수요와 대학교육 공급의 불일치 속에서 대학생은 졸업과 취업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인생과업에서 가장 중요한 생애진로시기가 청년후기와 성인초기에 맞물려 있다.

전문대학은 직업교육을 통해 졸업 후 취업을 목표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고등교육기관이다. 전문대학로된 통계자료와 대학평가원 대학통계자료에 따르면 전문대학의 취업률은 69.5%(2015)이고, 일반대학의 취업률은 62.02%(2015)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문대학생과 4년제 대학의 취업준비와 취업의사과정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한국노동패널조사 청년층 부가조사를 통해 청년층의 직접적인 취업준비와 취업의사에 대한 실증분석으로 청년층 취업실태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청년 취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의 고용정책 분석으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청년층 주관적 인식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이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대학생과 4년제 대학생의 취업준비와 취업의사, 첫 일자리, 정부고용대책에 대한 인식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년층의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지지가 청년활력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청년층의 취업준비와 취업의사, 첫 일자리, 고용대책, 주관적 인식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층 취업준비, 취업의사에 대한 대학유형별 차이는 있는가?

둘째, 청년층 첫 번째 일자리에 대한 대학유형별 차이는 있는가?

셋째, 청년층 정부고용정책 관심도와 인지도에 대학유형별, 거주지역별, 연령별 차이가 있는가?

넷째, 청년층 주관적 인식의 차이와 청년층 활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청년층 취업준비

가. 취업준비

취업준비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위해 일자리 정보를 탐색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학교생활에서 직업생활로 이행하기 위한 취업행동을 실행하는 과정이다.

전문대학생의 취업지원은 특강, 이력서 작성 및 면접스킬 교육과 자격증 교육, 각종 고시 및 기업 입사시험을 준비하는 취업준비반 등이 있다. 이 중 취·창업에 대한 단발성 특강, 세미나 등을 실시하는 비율이 96.3%(135개 대학 중 130개교)로 가장 높았다. 자격증 준비반 63.7%(86개교), 고

시 및 취업준비반 21.5%(29개교)로 나타났으며, 강의로는 취업아카데미, 취업특강, 대기업 스터디, 대기업 인적성 대비반, 인문고시반, 토익김중과장, 자격증취득프로그램 등이 있다. 학생활동으로는 취업 캠프나 경진대회, 공모전 등이 있다. 현장연계 활동은 채용박람회, 인턴십제도, 현장 체험활동, 해외취업연수사업 등을 포함한다(이강주 외, 2015; 윤미숙(2017)).

박성재·반정호(2006)의 대졸 청년층 취업준비노력의 실태와 성과 연구에 의하면 전문대학 졸업자는 교육훈련과 제학 중 일 경험, 대졸자는 학점, 현장실습, 외국어능력 등이 좋은 일자리의 진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임금효과에서도 전문대학 졸업자와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차이가 발견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윤미숙(2017)의 전문대학생 졸업예정자의 취업행동과 개인 및 조직 변인의 위계적 관계 연구결과에서 전문대학생 졸업예정자의 전체적인 취업행동은 보통 수준이며 예비적 취업준비와 비공식적 취업정보탐색에 비하여 공식적 취업정보탐색과 적극적 취업준비는 낮은 수준임을 밝히고 있다.

나. 취업비용

취업비용은 취업을 목적으로 준비 또는 입사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취업비용에는 외국어연수, 직업훈련, 취업정보, 자격증취득, 입사시험준비, 서류, 면접 등을 위한 비용 지출이 있다.

정범석·정화민(2014), 국내 대학생의 취업태도 및 취업준비 비용에 관한 연구에서 교육훈련의 경우 전문대학생은 자격증취득, 4년제 대학생은 토익 등 영어교육을 우선시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학관계자들의 정책적 의사결정에 이를 반영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전문대학생과 4년제 대학생의 취업비용의 차이분석에서는 해외연수비용이 전문대학생은 평균 809만원, 4년제 대학생은 1,559만원,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비용도 4년제 대학생이 202만원, 전문대학생은 113만원, 의류잡화비용도 전문대학생은 66만원, 4년제 대학생은 97만원으로 4년제 대학생이 더 많은 비용을 지출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취업준비비용에서 해외어학연수비용이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학유형별 지출의 차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청년층 취업의사

대학생들은 평생 고용가능성과 임금 프리미엄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정 기관으로의 취업을 선호하며, 이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을 실시하고 있다. 주무현 외(2008)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어 하는 회사는 정부기관, 국영기업체 및 공사, 민간 대기업체, 외국계기업 순이었으며, 중소기업이나 벤처회사 등 소규모의 회사 입사에 대한 선호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영민·이수영·임정연, 2014).

이영민·이수영·임정연 (2014)의 대학생 선호직장의 취업 결정요인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반적

으로 복수전공, 해외연수, 영어점수 취득, 진로 및 취업관련 교과목 수강 등 취업에 대한 사전준비가 많았던 학생들이 선호직장으로의 취업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선호직장 유형별 취업결정요인에서 외국계기업은 어학연수와 외국어 능력, 진로취업교과목 수강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학점, 자격증, 자격증 등급, 직업훈련이 취업성공에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었음을 제시하였다.

2. 청년층 첫 일자리

청년층의 첫 일자리는 사회적 서비스 수요자에서 노동시장에서 공급자로서의 첫 역할 전환을 통해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경력 개발의 시작이다. 직업생활을 통해 성인이 과정의 이행측면에서 사회적, 경제적, 심리발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 일자리에서 만족하지 않으면 이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직무만족은 개인적으로 업무 성과와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김은석, 2014; 박정주, 2011; 조대연·두민영, 2016). 일반적으로 직무만족이란 개인의 직장 생활 및 업무경험에 대한 결과로 얻게 되는 주관적인 감정 상태이다(Locke, 1976). 오성욱과 이승구(2009)에 의하면 직무만족은 직업 가치, 근무 환경, 인간관계, 급여, 복리후생, 안정성, 장래성 등의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여 형성된다.

조대연·두민영(2016)의 첫 일자리 만족도에 따른 대졸청년층 취업자의 유형 분류 및 특성 연구에 따르면, 첫 일자리에서 첫 일자리에서 가장 성공적인 취업을 한 준비된 취업 성공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학교생활 만족도와 취업 준비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반면, 첫 일자리 만족도가 가장 낮고, 이직률이 높았던 취업 시행착오형은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고, 취업 준비경험에 대해 부정적으로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3. 정부고용정책

청년고용정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수립된 '종합실업대책'일부로 시작되었다. 청년고용정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유형은 직접 일자리사업(46.3%)이고, 직업훈련사업(25.4%), 창업지원(18.5%)이다. 직접 일자리, 고용장려금, 창업지원사업은 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실업자에게 적합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 실업자에게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신선미·민무숙·권소영, 2013).

신선미·민무숙·권소영(2013)은 미취업 여성청년층의 현황과 청년고용정책과제 연구를 통해 청년고용정책이 일자리 제공 및 알선과 같은 실업자 대상 정책만이 아니라, 취업준비를 하느라 노동시장으로 진입을 유예하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취업준비활동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4. 청년층 사회적 지지와 활력

통계청 사회조사(2016)에 의하면 한국인의 본인 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는 응답은 2013년 31.2%에서 2015년 22.8%로 하락하고 있다. 다음 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높은 편이라는 응답은 2013년 39.6%에서 2015년 30.1%로 하락했다.

청년활력지수를 통해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으로 원하는 일자리를 갖는 것이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내 집 마련 등 원하는 주거에서 사는 것 19.1%, 원하는 연애 및 결혼 17.5%,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 11.9%, 친구, 동료 등 주변사람들과의 인간관계는 7.3% 순으로 나타났다(이상호, 2016).

이처럼 요즘의 청년세대는 N포 세대 또는 스펙을 쌓아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세대, 수저론 등으로 부정적인 의미의 신조어들이 난무하고 있다. 도전과 희망대신에 좌절이 늘어나고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층을 위해 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거나 실행중이다.

성실한 노력을 다하면 기회가 올 것이라는 기대감, 우리사회가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고 살만한 곳이라는 만족감이 필요하다. 긍정적 사회관계를 통해 자신이 존중받고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 존중관계의 사회적 지원을 통해서 청년층이 결혼과 희망하는 일자리, 안정된 주거생활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미래사회에 대해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자기실현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회적 배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III. 실증자료

1. 분석자료 및 대상자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KLIPS)의 19차년도(2016) 자료를 기준으로 개인, 부가조사(청년층) 자료를 병합하여 사용하였다. 개인단위 자료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일자리형태, 취업청년의 좋은 일자리, 선호임금 변수를 추출하였다. 부가조사 청년층 자료에서는 취업준비, 취업의사, 첫 일자리, 고용정책, 주관적 인식 변수를 추출하였다.

조사시점인 2016년 19차 년도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층 자료 3,225명 중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거나 다닌 적이 있는 자 2,119명을 1차 선별하였다. 1차 선별자 중에서 첫 번째 학교부터 세 번째 학교 모두 전문대학교 또는 4년제 대학교 하나의 유형만 다닌 적이 있는 2,084명을 2차 선별하여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1> 분석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사례수 (명(%))			비율	
전체		전문대학	4년제 대학	n=2,084	100.0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	남자	367(47.2)	679(52.0)	1,046	50.2
		여자	410(52.8)	628(48.0)	1,038	49.8
	연령별	15-24세	256(33.0)	439(33.6)	695	33.4
		25-29세	227(29.3)	413(31.6)	640	30.7
		30-34세	293(37.8)	455(34.8)	748	35.9
	학력 이수	졸업	538(69.2)	702(53.7)	1,240	59.5
		수료	1(0.1)	6(0.5)	7	0.3
		중퇴	65(8.4)	69(5.3)	134	6.4
		재학중	122(15.7)	428(32.7)	550	26.4
		휴학중	51(6.6)	102(7.8)	153	7.3
	거주 지역	서울특별시	132(17.0)	238(18.2)	370	17.8
		부산광역시	66(8.5)	128(9.8)	194	9.3
		대구광역시	39(5.0)	45(3.4)	84	4.0
		대전광역시	19(2.4)	40(3.1)	59	2.8
		인천광역시	54(6.9)	60(4.6)	114	5.5
		광주광역시	7(0.9)	24(1.8)	31	1.5
		울산광역시	39(5.0)	76(5.8)	115	5.5
		경기	217(27.9)	323(24.7)	540	25.9
		강원	11(1.4)	24(1.8)	35	1.7
		충북	19(2.4)	53(4.1)	72	3.5
		충남	27(3.5)	50(3.8)	77	3.5
		전북	18(2.3)	44(3.4)	62	3.0
		전남	25(3.2)	33(2.5)	58	2.8
		경북	53(6.8)	53(4.1)	106	5.1
		경남	44(5.7)	108(8.3)	152	7.3
		제주도	4(0.5)	5(0.4)	9	0.4
	세종	3(0.4)	3(0.2)	6	0.3	
직업 훈련	있음	43(5.5)	55(4.2)	98	4.7	
	현재훈련 중	4(0.5)	4(0.3)	8	0.4	
	없음	730(94.0)	1,248(95.5)	1,978	94.9	
임금수준	최소임금평균(만원)	290	323	2,084	100.0	
취업 여부	취업자	465(59.8)	642(49.1)	1,107	53.1	
	미취업자	312(40.2)	665(50.9)	977	46.9	
청년층	취업준비 경험	있음	418(53.8)	633(48.4)	1,051	50.4
		없음	359(46.2)	674(51.6)	1,032	49.6
	정부 청년층	전혀 관심 없음	127(16.3)	191(14.6)	318	15.3
		관심 없음	199(25.6)	321(24.6)	520	25.0

구분		사례수 (명(%))			비율	
전체		전문대학	4년제 대학	n=2,084	100.0	
부가적 특성	고용대체 관심도	보통	329(42.3)	512(39.2)	841	40.4
		관심 있음	108(13.9)	241(18.4)	349	16.7
		매우 관심 있음	14(1.8)	40(3.1)	54	2.6
	부모님 동거 (한분이상)	예	541(69.6)	939(71.8)	1,480	71.0
		아니오	227(29.2)	360(27.5)	587	28.2
		돌아가셨음	9(1.2)	7(0.5)	16	0.8
	경제적 독립	예	412(53.0)	530(40.6)	942	45.2
		아니오	365(47.0)	776(59.4)	1,141	54.8

2. 분석변수의 측정 도구

이 연구에서는 전문대학생과 4년제 대학생을 비교하기 위해 청년층의 취업준비, 취업의사, 고용 정책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연령, 입사지원서, 면접 횟수, 월수입, 연봉, 일자리 개수, 월 소득, 근무 시간 등 범주가 필요한 특성들은 범주를 구분하여 디미변수로 분석하였다.

<표 2> 분석변수의 조직적 정의

변수	변수값	형태		
취업 준비	연령	1(15-24), 2(25-29), 3(30-34)	더미	
	취업준비경험	0(아니오), 1(예)	더미	
	입사지원서 제출 횟수	1(1회), 2(2-3회), 3(4-5회), 4(6-10회), 5(11회 이상)	더미	
취업 의사	면접 횟수	1(1회), 2(2-3회), 3(4-5회), 4(6-10회), 5(11회 이상)	더미	
	희망 일자리 수입(월평균)	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250만원 미만, 25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더미	
	희망 일자리 수입(연평균(연봉))	1,800만원 미만, 1,800-2,500만원 미만, 2,500-3,000만원 미만, 3,000-3,500만원 미만, 3,500만원 이상	더미	
첫 일자리	졸업이후 일자리 개수	1개(현재까지 계속 있음), 2개, 3개, 4개, 5개 이상	더미	
	월 평균 소득(임금)	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250만원 미만, 25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더미	
	일주일(평균) 근무시간	15시간 이하, 16-40시간, 41-50시간, 51-60시간, 61시간 이상	더미	
주관적	청년활력	인간관계	매우자신없다(1점) ~ 매우자신있다(5점)	연속
		연애 및 결혼		
		희망 일자리		
		정주여건 자녀양육		

변수		변수값		형태
한국사회인식	노력기대	전혀동의하지않는다(1점) ~ 매우동의한다(5점)		연속
	사회만족			
자존감	자기긍정	전혀그렇지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		연속
	유능존재			
	부정극복			
사회적지지	긍정적관계	전혀그렇지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		연속
	갈등관계			

가. 취업준비 측정도구

취업준비의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청년층 부가조사의 설문문항들을 변수로 분석하여 특성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취업준비에는 취업준비 경험, 시작시기, 입사지원서 제출, 취업준비 종류 등을 분석하였다.

<표 3> 청년층 취업준비 측정도구

하위변수	변수 값
취업준비 경험	예 / 아니오
취업준비 시작시기	재학중/ 졸업유예기간부터 / 졸업이후
입사지원서 제출 횟수, 면접 횟수	1회 / 2-3회 / 4-5회 / 6-10회 / 11회 이상
외국어 능력개발, 해외어학연수 준비 및 연수, IT, 컴퓨터관련 교육과정 수강 각종 자격증 취득, 공모전 참가, 취업관련 정보 수집, 입사면접 준비, 국내의 현장실습 및 인턴십, 창업준비, 외모관리	준비여부(유/무), 비용(없음/있음/평균비용)

나. 취업의사 측정도구

취업의사 변수로는 취업여부, 취업자의 이직고려, 미취업자의 속성을 분석하였다.

<표 4> 청년층 취업의사 측정도구

하위변수		변수 값
취업여부		취업자 / 미취업자
취업자	이직고려여부	적극적 이직의향 / 이직 고려중 / 아니오
	이직 고려 이유	현재와 다른 새로운 일 / 정리해고 / 명예퇴직 대상 / 계약기간 만료 / 소득(보수) 적어서

하위변수		변수 값
이직 고려중 /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의사, 해외취업 의사, 창업 의사, 시간제 일자리 취업 의사, 희망 직업(창업) 결정, 희망 직업 가능성 확인	유 / 무

취업의사 변수중에서 고용형태 속성에 대해 희망 고용형태, 일자리 규모, 희망 수입, 취업시 고려사항을 통해 특성을 분석하였다.

<표 5> 청년층 고용형태 측정도구

하위변수	변수 값
희망 고용 형태	일급근로자 / 고용주, 자영업자 / 무급 가족 종사자
희망 일자리 규모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국가기관(공무원) / 공기업 / 외국계기업 / 자영업 / 기타
희망 일자리 수입(월평균)	150만원 미만 / 150-200만원 미만 / 200-250만원 미만 / 250-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희망 일자리 수입(연평균(연봉))	1,800만원 미만 / 1,800-2,500만원 미만 / 2,500-3,000만원 미만 / 3,000-3,500만원 미만 / 3,500만원 이상
취업시 중요 고려사항	의미 또는 타인의 흥미와 중요한 일 / 여가나 자유시간 보장 / 원하는 것 살 수 있는 월급 / 고용의 안정성 / 개인의 발전가능성 / 직업의 장래성 / 직장의 소재지 또는 위치

다. 첫 번째 일자리 측정도구

청년층 첫 번째 일자리의 변수로는 졸업이후 취업 여부, 일자리 개수, 취업시 종사상 지위, 근무 형태, 기업형태, 월평균 소득, 근무시간, 전공분야와 업무일치, 희망 직업과 취업의 실패를 분석하였다.

<표 6> 청년층 첫 번째 일자리 측정도구

하위변수	변수 값
졸업이후 취업 여부	취업한 적 없음 / 취업한 적 있음
졸업이후 일자리 개수	1개(현재까지 계속 있음) / 2개 / 3개 / 4개 / 5개 이상
취업시 종사상 지위	상용직 일급근로자 / 임시직 일급근로자 / 일용직 일급근로자 / 종업원을 둔 고용주 /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 무급 가족 종사자

하위변수	변수 값
근무형태(시간제/전일제)	시간제 / 전일제
기업형태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 외국인회사 /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 / 공사합동기업 / (재단, 사단)법인단체 /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 특정 소속 없음 / 기타
월평균 소득(임금)	150만원 미만 / 150-200만원 미만 / 200-250만원 미만 / 250-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일주일(평균) 근무시간	15시간 이하 / 16-40시간 / 41-50시간 / 51-60시간 / 61시간 이상
전공분야와 업무내용 일치	매우 일치 / 약간 일치 / 별로 일치하지 않음 / 전혀 일치하지 않음
업무와 교육정도	교육수준 보다 높다 / 교육수준과 동일 / 교육수준보다 낮음
희망하던 직업 여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현재까지 취업여부	취업중 / 지금은 퇴직
퇴직사유	직장의 파산, 폐업, 휴업 등 / 정리해고 / 권고사직 / 계약기간 끝남 / 소득(보수) 적음 / 일거리가 없거나 적음 / 임시적 또는 장래성 없음 / 적성, 지식, 기능 맞지 않음 / 근로시간 또는 환경이 나쁨 / 자기(가족) 사업 하려고 / 결혼, 육아, 가사 문제 / 건강, 고령 등의 이유로 / 회사 내 인간관계 / 회사 이사(전근, 발령) / 우리 집이 이사 / 기타

라. 고용정책 측정도구

청년층 고용정책 측정은 고용정책 관심, 취업지원 정책, 교육훈련 및 양성과정, 취업난 주요원인, 적절한 해결방법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표 7> 청년층 고용정책 측정도구

하위변수	변수 값
고용대책 관심도 거주지역별(17개 광역자치단체) 연령별(15~ 14세, 2~29세, 30~34세)	전혀 관심이 없다(1점) ~ 매우 관심이 있다(5점)
고용대책 무관심 이유	취업에 관심이 없음 / 스스로 취업준비 / 정부의 홍보 부족 / 내용이 너무 어려움 / 실질적 도움이 안 될 것임 / 나에게 해당되는 정책 없음
취업 지원	취업정보제공, 취업지원관 제도,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유 / 무
교육훈련 및 인력 양성	내일배움카드, 청년취업 아카데미, 일학습 병행 유 / 무
청년취업 인턴제	유 / 무
해외취업지원(K-Move 등)	유 / 무
창업 지원(청년창업펀드 조성, 판로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 확대 등)	유 / 무
청년층 취업난의 주요 원인	양질의 일자리 부족 / 중고령자의 늘어남 퇴직시기 / 높은 대학 진학률과 대졸자배출 / 청년층의 직무 능력 부족 / 청년층의 취업 눈높이 / 취업과 괴리

하위변수	변수 값
고용문제해결 가장 적절한 방법	된 교육 / 취업 지원 서비스의 부실 / 경제성장 둔화와 산업체질의 변화 등 외부요인 대기업 일자리 창출 유도 / 중소기업의 일자리 질 개선 / 기존 근로자의 일자리 나누기 / 과도한 대학진학 억제 / 직업교육의 / 청년층 구직자 소득 보장 /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시 진로지도
조직몰입도, 직무만족도, 요인별 직무만족도, 일자리만족도, 전반적일만족도, 요인별 직무만족도 하위요인(역채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아주 그렇다(5점)
임금만족도, 취업안정성만족도, 하는일 만족도, 근무환경만족, 근로시간만족, 발전가능성만족, 인간관계만족, 인사공정만족, 복지후생제도만족	매우 불만족(1점) ~ 매우 만족(5점)

마. 주관적 인식

청년층 주관적 인식에 대한 변수로는 한국사회인식, 사회적지지, 청년활력 변수의 구조적관계를 통해 청년활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표 8> 청년층 주관적 인식 측정도구

하위변수	변수 값
청년활력 (5문항)	인간관계 연애 및 결혼 희망 일자리 정주여건 자녀양육 매우자신없다(1점) ~ 매우자신있다(5점)
한국사회인식(8문항)	노력기대(5문항) 1.2.3.4.5 사회만족(3문항) 6.7.8 자기긍정(2문항) 1.5 전혀동의하지 않는다(1점) ~ 매우동의한다(5점)
자존감(9문항)	우능존재(3문항) (역채점)2.3.4 분장극복(4문항) (역채점)6.7.9.10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
사회적지지 (11문항)	긍정적관계(6문항) 1.2.3.4.5.6 갈등관계(5문항) (역채점)7.8.9.10.11

IV. 실증분석 결과

1. 취업준비(JOB Preparation)

가. 청년층 대학유형별 취업준비 경험

청년층 취업준비는 대학유형별로 살펴 본 결과(<표 9> 참조), 취업준비경험은 전문대학생 전체 수준에서는 '예' 응답이 53.8%(418명)로 더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4년제 대학생 전체 수준에서는 '아니오' 응답이 51.6%(674명)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전체 2084명 중에서 '예' 응답이 1051명 50.4%로 더 많은 비율로 나타났다($\chi^2 = 5.611, p<.05$). 따라서 취업준비 종류는 1051명에 대해 분석이 이루어졌다.

취업준비 시작 시기는 전문대학생 전체 수준에서는 '졸업 이후'가 47.8%(200명)로 가장 많게 나타나고 있으며 4년제 대학생 전체 수준에서는 '재학중'이 55.1%(349명)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chi^2 = 10.961, p<.05$).

입사지원서 제출횟수는 전문대학생 전체수준에서 '2-3회'가 38.1%(145명)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4년제 대학유형 전체수준에서도 '2-3회'가 27.2%(144명)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chi^2 = 22.833, p<.001$). 면접을 본 횟수는 전문대학유형 전체수준에서 '2-3회'가 42.1%(158명)로 가장 많게 나타나고 있으며, 4년제 대학유형 전체수준에서도 '2-3회'가 39.1%(201명)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chi^2 = 11.582, p<.05$).

<표 9> 청년층 대학유형별 취업준비 교차분석

취업준비		대학 유형(명(%))		N
		전문대학(2-3년제)	4년제 대학	
취업준비 경험 $\chi^2=5.611^*$	예	418(53.8)	633(48.4)	1,051(50.4)
	아니오	359(46.2)	674(51.6)	1,032(49.6)
취업준비 시작시기 $\chi^2=10.961^*$	재학 중	198(47.4)	349(55.1)	547(52.0)
	졸업유예기간부터	18(4.3)	35(5.5)	53(5.0)
	졸업 이후	200(47.8)	249(39.3)	449(42.7)
입사지원서 제출 횟수 $\chi^2=22.833^{***}$	1회	90(23.6)	116(21.9)	206(22.2)
	2-3회	145(38.1)	144(27.2)	289(31.8)
	4-5회	61(16.0)	86(16.3)	147(16.2)
	6-10회	57(6.3)	101(19.1)	158(17.4)
	11회 이상	28(7.3)	82(15.5)	110(12.1)
면접 횟수 $\chi^2=11.582^*$	1회	148(39.5)	169(32.9)	317(35.7)
	2-3회	158(42.1)	201(39.1)	359(40.4)
	4-5회	32(8.5)	70(13.6)	102(11.5)
	6-10회	30(8.0)	60(11.7)	90(10.1)
	11회 이상	7(1.9)	14(2.7)	21(2.4)

***p<0.001, **p<0.01, *p<0.05 (이하 동일). 주의: 무응답자는 포함하지 않았음(이하 동일)

대학유형별에 따른 청년층 취업준비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 10> 참조) 입사지원횟수는 4년제 대학유형(M=2.79, SD=1.38)이 전문대학유형(M=2.44, SD=1.21)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4.01, p<.001). 면접 횟수는 4년제 대학유형(M=2.12, SD=1.08)이 전문대학유형(M=1.91, SD=.98) 보다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t=-3.11, p<.01).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입사지원과 면접 모두 4년제 대학유형이 전문대학유형보다 평균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을 위해 더 많은 입사지원원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0> 청년층 대학유형별 취업준비의 차이 검증

구분	N	M	SD	t	
입사지원 횟수	전문대학(2-3년제)	381	2.44	1.21	-4.01***
	4년제 대학	529	2.79	1.38	
면접 횟수	전문대학(2-3년제)	375	1.91	.98	-3.11**
	4년제 대학	514	2.12	1.08	

나. 청년층 취업준비 비용

청년층 취업준비 경험이 있는 대상으로 비용발생 여부와 평균비용을 대학유형별로 살펴보았다 (<표 11> 참조). 외국어 능력개발은 경험과 비용측면에서 전문대학유형은 각각 7.4%의 준비경험과 173.57만원(SD=425.04)의 평균비용을 나타내고 있으며, 4년제 대학유형은 각각 28.6%의 준비경험과 134.45만원(SD=283.81)의 평균비용을 지출하였다. 비용측면은 개인에 따라 비용차이가 많은 것으로 보이며 취업준비 경험에서 4년제 대학유형이 전문대학유형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chi^2=70.220, p<.001$).

해외어학연수 준비 및 연수 경험과 비용측면에서 전문대학유형은 각각 0.7%의 준비경험과 603.33만원(SD=552.30)의 평균비용 지출을 나타내고 있으며, 4년제 대학유형은 각각 5.3%의 준비경험과 2242.81만원(SD=1168.72)의 평균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취업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에 따라 비용 차이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취업준비 경험에서 4년제 대학유형이 전문대학유형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chi^2=16.725, p<.001$).

각종 자격증 취득 경험과 비용측면에서 전문대학유형은 각각 28.7%의 준비경험과 55.4만원(SD=56.46)의 평균비용지출을 나타내고 있으며, 4년제 대학유형은 각각 25.6%의 준비경험과 118.93만원(SD=324.80)의 평균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 비용에서 개인차가 많은 것으로 보이며 4년제 대학유형이 전문대학유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비용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2.057, p<.05).

공모전 참가 경험과 비용측면에서 전문대학유형은 각각 1.7%의 준비경험과 14.25만원(SD=13.12)의 평균비용지출을 나타내고 있으며, 4년제 대학유형은 각각 3.8%의 준비경험과 34.38만원(SD=37.65)의 평균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전 참가 경험은 4년제 대학유형이 전문대학유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3.941, p<.05$).

취업관련 정보수집 경험과 비용측면에서 전문대학유형은 각각 19.1%의 준비경험과 9.57만원(SD=11.01)의 평균비용지출을 나타내고 있으며, 4년제 대학유형은 각각 29.2%의 준비경험과 32.17만

원(SD=40.74)의 평균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정보수집 경험에서 4년제 대학유형이 전문대학유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13.585$, $p<.001$).

입사면접 준비 경험과 비용측면에서 전문대학유형은 각각 23.7%의 준비경험과 8.44만원(SD=8.28)의 평균비용지출을 나타내고 있으며, 4년제 대학유형은 각각 33.3% 준비경험과 12.91만원(SD=19.30)의 평균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사면접 경험과 비용은 4년제 대학유형이 전문대학유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11.271$, $p<.001$).

IT, 컴퓨터관련 교육과정 수강, '국내외 현장실습 및 인턴십', '창업준비', '외모관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전문대학유형은 취업준비 참여 중에서 각종 자격증 취득이 28.7%(120명)로 가장 높은 비율로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4년제 대학유형은 입사면접 준비가 33.3%(211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취업준비를 위해 전문대학유형은 '각종 자격증 취득', '입사면접 준비', '취업관련 정보수집' 순으로 취업준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비용지출은 '해외어학연수 준비 및 연수비용', '외국어 능력개발', '각종 자격증 취득' 순으로 비용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유형은 '입사면접 준비', '취업관련 정보수집', '외국어 능력개발' 순으로 취업준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비용지출은 전문대학유형과 동일한 순위로 비용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금액 측면에서는 전문대학유형은 '외국어 능력개발'에서 4년제 대학유형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이며, 4년제 대학유형은 '해외어학연수 준비 및 연수비용'과 '각종 자격증 취득' 비용에서 전문대학유형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인연차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 11> 청년층 취업준비의 경험과 비용 금액 차이 분석

취업준비 종류	경험/비용/비용금액	대학 유형(명(%), M(SD)만원)		N
		전문대학(2-3년제)	4년제 대학	
외국어 능력개발	$\chi^2=70.220^{***}$ 경험 유	31(7.4)	181(28.6)	212(20.2)
	$\chi^2=881$ 비용있음	21(67.7)	137(75.7)	
	t=-.546 평균비용	173.57(425.04)	134.45(283.81)	
해외어학연수 준비 및 연수	$\chi^2=16.725^{***}$ 경험 유	3(0.7)	35(5.5)	38(3.6)
	$\chi^2=.279$ 비용있음	3(100.0)	32(91.4)	
	t=-.928 평균비용	603.33(552.30)	2242.81(1168.72)	
IT, 컴퓨터관련 교육과정 수강	$\chi^2=1.077$ 경험 유	65(15.6)	114(18.0)	179(17.0)
	$\chi^2=0.000$ 비용있음	40(61.5)	70(61.4)	
	t=-.905 평균비용	46.15(67.10)	65.71(126.80)	
각종 자격증 취득	$\chi^2=1.245$ 경험 유	120(28.7)	162(25.6)	282(26.8)
	$\chi^2=.348$ 비용있음	89(74.2)	115(71.0)	
	t=-2.057* 평균비용	55.43(56.46)	118.93(324.80)	
공모전 참가	$\chi^2=3.941^*$ 경험 유	7(1.7)	24(3.8)	31(2.9)
	$\chi^2=1.295$ 비용있음	4(57.1)	8(33.3)	
	t=-1.356 평균비용	14.25(13.12)	34.38(37.65)	

취업준비 종류	경험/비용/비용금액	대학 유형(명(%), M(SD)만원)		N
		전문대학(2-3년제)	4년제 대학	
취업관련 정보수집	$\chi^2=13.585^{***}$ 경험 유	80(19.1)	185(29.2)	265(25.2)
	$\chi^2=430$ 비용있음	7(8.8)	12(6.5)	
	t=-1.422 평균비용	9.57(11.01)	32.17(40.74)	
입사면접 준비	$\chi^2=11.271^{***}$ 경험 유	99(23.7)	211(33.3)	310(29.5)
	$\chi^2=4.071^*$ 비용있음	16(16.2)	56(26.5)	
	t=-.896 평균비용	8.44(8.28)	12.91(19.39)	
국내외 현장실습 및 인턴십	$\chi^2=.094$ 경험 유	36(8.6)	58(9.2)	94(8.9)
	$\chi^2=1.137$ 비용있음	4(11.1)	3(5.2)	
	t=.837 평균비용	15.00(11.94)	10.00(0.00)	
창업준비	$\chi^2=1.787$ 경험 유	8(1.9)	6(0.9)	14(1.3)
	$\chi^2=1.137$ 비용있음	4(11.1)	3(5.2)	
	t=.837 평균비용	1039.80(713.11)	700.00(721.11)	
외모관리	$\chi^2=0.011$ 경험 유	46(11.0)	71(11.2)	117(11.1)
	$\chi^2=0.010$ 비용있음	27(58.7)	41(57.7)	
	t=-1.254 평균비용	41.96(42.93)	66.05(110.98)	

나. 청년층 취업의사(JOB View)

청년층 취업의사와 미취업자 고용형태, 희망 일자리수입을 대학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2> ~ <표 15> 참조).

(1) 청년층 취업의사

청년층 취업의사에 대해 대학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취업준비 경험이 있는 1051명 중에서 '취업의사'는 71.3% 749명으로 나타났으며, '미취업자'는 28.7% 302명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유형 전체 수준에서 미취업자는 26.3%(110명)로 나타났으며 4년제 대학유형 전체 수준에서는 미취업자는 30.3%(192명)로 나타났다.

미취업자와 적극적 이직의향, 이직 고려중인 유형 411명(전문대학유형 150명, 4년제 대학 261명) 중에서 '중소기업 취업의사'가 있는 경우 209명(50.9%)으로 나타났으며 전문대학유형이 4년제 대학유형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즉 전문대학유형 전체 수준에서 57.3%(86명)로 나타났으며, 4년제 대학유형 전체 수준에서는 47.1%(123명)로 나타났으며($\chi^2=3.971$, $p<.05$).

'해외 취업의사'가 있는 경우 16.8%(69명)으로 나타났으며 4년제 대학유형이 전문대학유형 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즉 4년제 대학유형 전체수준에서 20.3%(53명)로 나타났으며, 전문대학유형 전체 수준에서 10.7%(16명)로 나타났다($\chi^2=6.336$, $p<.05$).

'창업의사'가 있는 경우 38명(9.2%)으로 나타났으며 전문대학유형이 4년제 대학유형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즉 전문대학유형 전체 수준에서 13.3%(20명)로 나타났으며, 4년제 대학유형 전체 수

준에서는 6.9%(18명)로 나타났다($\chi^2=4.703, p<.05$).

종합적으로 이적고려 중인 자를 포함한 미취업자 취업의사를 대학유형별로 살펴보면 전문대학유형 전체수준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의사', '시간제 일자리 취업의사', '창업의사' 순으로 나타났으며 4년제 대학유형 전체수준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의사', 해외 취업의사, '시간제 일자리 취업의사'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 청년층 대학유형별 취업의사 교차분석

취업의사		대학 유형(명(%))		N	
		전문대학(2-3년제)	4년제 대학		
취업여부 $\chi^2=1.983$	취업자	308(73.7)	441(69.7)	749(71.3)	
	미취업자	110(26.3)	192(30.3)	302(28.7)	
적극적 이직의향/ 이직 고려중/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의사 $\chi^2=3.971^*$	유	86(57.3)	123(47.1)	209(50.9)
	해외취업 의사 $\chi^2=6.336^*$	유	16(10.7)	53(20.3)	69(16.8)
	창업 의사 $\chi^2=4.703^*$	유	20(13.3)	18(6.9)	38(9.2)
	시간제 일자리 취업 의사 $\chi^2=3.571$	유	28(18.7)	31(11.9)	59(14.4)

(2) 청년층 미취업자 희망 고용형태

(가) 청년층 미취업자 희망 고용형태

청년층 미취업자 희망 고용형태에 대해 대학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미취업자와 적극적 이직의향, 이직 고려중인 유형 411명(전문대학 150명, 4년제 대학 261명) 중에서 희망 고용형태를 살펴본 결과 '임금근로자'는 91.5%(376명)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4년제 대학유형이 92.3%로 전문대학유형 90.0% 보다 약간 높은 비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 일자리규모는 '중견기업' 29.3%(110명), '중소기업' 25.0%(94명), '대기업' 20.2%(76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학 유형별로는 희망 순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전문대학유형 전체 수준에서 '중소기업'이 37.8%(51명)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중견기업' 35.6%(48명), '대기업' 14.1%(19명) 순이었다. 4년제 대학유형 전체 수준에서는 '중견기업'이 25.7%(62명)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대기업' 23.7%(57명), '국가기관(공무원)' 20.7%(50명)으로 나타났다($\chi^2=49.136, p<.001$).

<표 13> 청년층 대학유형별 미취업자 희망 고용형태와 취업시 고려사항

희망 고용형태		대학 유형(명(%))		N
		전문대학(2-3년제)	4년제 대학	
희망 고용형태 $\chi^2=2.312$	임금근로자	135(90.0)	241(92.3)	376(91.5)
	고용주, 자영업자	12(8.0)	16(6.1)	28(6.8)
	무급 가족 종사자	2(1.3)	4(1.5)	6(1.5)
희망 일자리 규모 $\chi^2=49.136^{***}$	대기업	19(14.1)	57(23.7)	76(20.2)
	중견기업	48(35.6)	62(25.7)	110(29.3)
	중소기업	51(37.8)	43(17.8)	94(25.0)
	국가기관(공무원)	7(5.2)	50(20.7)	57(15.2)
	공기업	2(1.5)	20(8.3)	22(5.9)
	외국계기업	0(0.0)	4(1.7)	4(1.1)
	자영업	5(3.7)	2(0.8)	7(1.9)
기타	2(1.5)	3(1.2)	5(1.3)	
취업시 중요 고려사항 $\chi^2=27.965^{***}$	의미, 타인 흥미와 중요한 일	9(6.0)	33(12.6)	42(10.2)
	여가나 자유시간 보장	50(33.3)	52(19.9)	102(24.8)
	원하는 것 할 수 있는 월급	24(16.0)	25(9.6)	49(11.9)
	고용의 안정성	28(18.7)	77(29.5)	105(25.5)
	개인의 발전가능성	17(11.3)	33(12.6)	50(12.2)
	직업의 장래성	12(8.0)	36(13.8)	48(11.7)
	직장의 소재지 또는 위치	9(6.0)	5(1.9)	14(3.4)
	대학유형별에 따른 청년층 미취업자와 적극적 이직의향, 이직 고려중인 유형 취업시 고려사항을 분석한 결과 '고용안정성' 25.5%(105명), '여가나 자유시간 보장' 24.8%(102명), '개인의 발전가능성' 12.2%(50명) 순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대학유형 전체 수준에서 '여가나 자유시간 보장'(33.3%), '고용의 안정성'(18.7%), '원하는 것 할 수 있는 월급'(16.0%)순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유형 전체 수준에서는 '고용의 안정성'(29.5%), '여가나 자유시간 보장' (19.9%), '직업의 장래성'(13.8%) 순으로 나타났다($\chi^2=27.965, p<.001$).			

(나) 청년층 미취업자 희망 일자리 수입형태

① 청년층 미취업자 희망 일자의 수입형태 교차분석

청년층 미취업자와 적극적 이직의향, 이직 고려중인 유형 411명(전문대학 150명, 4년제 대학 261명) 중에서 희망 일자리 수입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14>과 같다. 희망 일자리 수입에 대해 월평균으로 응답한 비율이 86.4%(355명)이었으며, 연평균(연봉)으로 응답한 비율은 13.4(55명)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대학유형이 일자리 수입에 대해 월평균 개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월평균 척도에 응답한 경우 전문대학유형 전체수준에서 91.3%(137명)로 나타났고, 4년제 대학유형 전체수준에서 83.5%(2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chi^2=7.525, p<.05$).

희망 일자리 월평균 수입은 '200-250만원 미만'이 35.2%(125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문대학유형 전체수준에서 33.6%(46명), 4년제 대학유형 전체수준에서 35.2%(125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chi^2=17.445, p<.01$).

희망 일자리 연평균(연봉) 수입은 대학 유형 전체수준에서 '3500만 원 이상' 응답자가 54.59%(30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4년제 대학유형 전체수준에서 62.8%(27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chi^2=10.748$, $p<.05$).

<표 14> 청년층 대학유형별 미취업자 희망 일자리 수입 교차분석

희망 일자리 수입		대학 유형(명(%))		N
		전문대학(2-3년제)	4년제 대학	
희망 일자리 월평균 또는 연평균(연봉) 여부 $\chi^2=7.525^*$	월평균	137(91.3)	218(83.5)	355(86.4)
	연평균(연봉)	12(8.0)	43(16.5)	55(13.4)
희망 일자리 수입 (월평균) $\chi^2=17.445^{**}$	150만원 미만	8(5.8)	2(0.9)	10(2.8)
	150-200만원 미만	25(18.2)	18(8.3)	43(12.1)
	200-250만원 미만	46(33.6)	79(36.2)	125(35.2)
	250-300만원 미만	24(17.5)	42(19.3)	66(18.6)
	300만원 이상	34(24.8)	77(35.3)	111(31.3)
희망 일자리 수입 (연평균(연봉)) $\chi^2=10.748^*$	1,800만원 미만	0(0.0)	2(4.7)	2(3.6)
	1,800-2,500만원 미만	2(16.7)	4(9.3)	6(10.9)
	2,500-3,000만원 미만	4(33.3)	2(4.7)	6(10.9)
	3,000-3,500만원 미만	3(25.0)	8(18.6)	11(20.0)
	3,500만원 이상	3(25.0)	27(62.8)	30(54.5)

② 청년층 미취업자 희망 일자리 수입 평균차이

대학유형별에 따른 청년층 미취업자와 적극적 이직의향, 이직 고려중인 유형 희망의 일자리수입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표 15> 참조) 월평균은 4년제 대학유형(M=255.37, SD=80.11)이 전문대학 유형(M= 228.03, SD=73.99) 보다 27.34만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3.22$, $p<.001$). 연평균(연봉)은 4년제 대학유형(M=3583.72, SD=103.92)이 전문대학유형(M=3325, SD=1867) 보다 258.72만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15> 청년층 대학유형별 희망일자리 수입 차이 검증

구 분	N	M	SD	t
월평균(만원)	전문대학(2-3년제)	137	228.03	73.99
	4년제 대학	218	255.37	80.11
연평균(연봉)	전문대학(2-3년제)	12	3325.00	1867.00
	4년제 대학	43	3583.72	1036.92

2. 첫 번째 일자리(JOB START)

대학 졸업 후 첫 번째 일자리 유지, 첫 번째 일자리 형태, 첫 번째 일자리 질적 수준 및 차이에 대해 대학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6>에서 <표 19> 참조).

가. 졸업 후 첫 번째 일자리 유지형태

졸업 후 첫 번째 일자리 경험과 유지형태 분석결과는 <표 16>과 같다. 취업준비 경험이 있는 1051명 중에서 졸업이후 '취업한 적 없음'은 83.0% 872명으로 나타났으며, '취업한 적 있음'은 17.0% 179명으로 나타났다. '취업한 적 있음'은 전문대학유형 전체 수준에서 88.3%(369명)로 나타났으며, 4년제 대학유형 전체 수준에서 79.5%(503명)로 나타났다. 졸업이후 '취업한 적 없음'은 전문대학유형 전체 수준에서 11.7%(49명)로 나타났으며, 4년제 대학유형 전체 수준에서는 20.5%(130명)로 나타났다($\chi^2=13.843$, $p<.001$). 이는 높은 청년실업률을 반증하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졸업이후 일자리 취업 횟수 분석결과 1개의 일자리(현재까지 계속 취업중인 경우 포함) 비율은 58.2%(50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개인 경우 22.3%(194명), 3개인 경우 12.5%(109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유형별로 일자리 수 전문대학유형(M=1.96, SD=1.35)이 4년제 대학유형(M=1.58, SD=.99) 보다 0.38개 정도 더 많게 나타났다. 이는 전문대학유형 일자리가 보다 더 유동적임을 알 수 있다($t=4.60$, $p<.001$).

현재까지 취업을 유지하는 경우는 '취업 중'이 전체 46.2%(403명)로 나타났으며 전문대학유형이 40.4%(149명)로 4년제 대학유형 50.5%(254명)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유형의 일자리 유지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유형별로 취업유지율을 보면 4년제 대학유형이 전문대학유형 보다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chi^2=8.766$, $p<.01$).

첫 일자리를 그만 둔 이유로는 '소득(보수) 적음'이 전체 23.7%(111명)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유형 전체 수준에서는 '소득(보수) 적음' 25.5%, '임시적 또는 장래성 없음' 15.5%, '적성, 지식, 기능 맞지 않음' 12.3% 순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유형 전체 수준에서는 '소득(보수) 적음' 22.1%, '임시적 또는 장래성 없음' 17.3%, '결혼, 육아, 가사 문제' 14.5%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유형과 4년제 대학유형의 퇴직사유 순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16> 첫 일자리 유지 형태

첫 일자리		대학 유형(명(%))		N
		전문대학(2-3년제)	4년제 대학	
졸업이후 취업 여부 $\chi^2=13.843^{***}$	취업한 적 없음	49(11.7)	130(20.5)	179(17.0)
	취업한 적 있음	369(88.3)	503(79.5)	872(83.0)
2달 이상 일자리 취업 횟수 $\chi^2=13.843^{***}$	1개(현재까지 계속 있음)	182(49.5)	325(64.6)	507(58.2)
	2개	87(23.6)	107(21.3)	194(22.3)
	3개	63(17.1)	46(9.1)	109(12.5)

첫 일자리		대학 유형(명(%))		N
		전문대학(2-3년제)	4년제 대학	
	4개	20(5.4)	15(3.0)	35(4.0)
	5개 이상	16(4.3)	10(2.0)	26(3.0)
t=4.60***	M(개)	1.96개	1.58개	872(100.0)
	SD	1.35	.99	
현재까지 취업여부 $\chi^2=8.766^{**}$	취업중	149(40.4)	254(50.5)	403(46.2)
	직금은 퇴직	220(59.6)	249(49.5)	469(53.8)
퇴직사유 $\chi^2=18.677$	직장의 파산, 폐업, 휴업 등	7(3.2)	9(3.6)	16(3.4)
	정리해고	1(5)	1(4)	2(4)
	권고사직	1(5)	5(2.0)	6(1.3)
	계약기간 끝남	5(2.3)	14(5.6)	19(4.1)
	소득(보수) 적음	56(25.5)	55(22.1)	111(23.7)
	일거리가 없거나 적음	5(2.3)	3(1.2)	8(1.7)
	임시직 또는 장래성 없음	34(15.5)	43(17.3)	77(16.4)
	적성, 지식, 기능 맞지 않음	27(12.3)	26(10.4)	53(11.3)
	근로시간 또는 환경이 나쁨	26(11.8)	23(9.2)	49(10.4)
	자기(가족) 사업 하려고	2(9)	4(1.6)	6(1.3)
	결혼, 육아, 가사 문제	26(11.8)	36(14.5)	62(13.2)
	건강, 고령 등의 이유로	9(4.1)	2(8)	11(2.3)
	회사 내 인간관계	10(4.5)	11(4.4)	21(4.5)
	회사 이사(전근, 발령)	2(9)	3(1.2)	5(1.1)
	우리 집이 이사	0(0.0)	3(1.2)	3(6)
	기타	8(3.6)	11(4.4)	19(4.1)

나. 졸업 후 첫 번째 일자리 근무형태

(1) 기업형태의 차이

졸업 후 취업한 적이 있는 872명을 대상으로 첫 번째 일자리 취업 시 종사상 지위, 근무형태, 기업형태를 분석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 근무형태는 대부분 '전일제' 93.1%(812명) 형태로 나타났다($\chi^2=18.571$, $p<.001$). 또한 기업형태는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가 81.2%(708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chi^2=35.839$, $p<.001$). 이와 같은 근무형태는 전문대학유형과 4년제 대학유형 모두 같은 순위로 나타났으나 기업형태의 경우 4년제 대학유형이 좀 더 다양한 형태의 분포를 보였다. 특히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업' 형태에서 전문대학 0.8%에 비해 4년제 대학 6.4%의 분포가 더 많게 나타나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입사조건에서 전문대학유형이 배제되거나 경쟁에서 불리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7> 대학유형별 첫 일자리 근무형태

첫 일자리		대학 유형(명(%))		N
		전문대학(2-3년제)	4년제 대학	
근무형태(시간제/전일제) $\chi^2=18.571^{***}$	시간제	10(2.7)	48(9.5)	58(6.7)
	전일제	357(96.7)	455(90.5)	812(93.1)
기업형태 $\chi^2=35.839^{***}$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325(88.1)	383(76.1)	708(81.2)
	외국인회사	4(1.1)	6(1.2)	10(1.1)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 /공사합동기업	3(0.8)	32(6.4)	35(4.0)
	(재단, 사단)법인단체	28(7.6)	46(9.1)	74(8.5)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7(1.9)	32(6.4)	39(4.5)
	특정 소속없음	0(0.0)	3(6)	3(3)
	기타	0(0.0)	1(2)	1(1)

(2) 첫 번째 일자리 질적 수준 및 차이

대학유형별 졸업 후 첫 번째 일자리 취업 시 월평균 소득(임금)과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의 질적인 수준과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8>, <표 19> 참조). 월평균 소득은 전문대학유형 전체수준에서 '150만원 미만'이 44.2%(163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150~200만원 미만' 34.4%(127명) 순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유형 전체수준에서는 '150~200만원 미만'이 33.8%(170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150만원 미만' 28.0%(141명)으로 나타났다($\chi^2=43.601$, $p<.001$).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전체적으로 '16~40시간'이 66.7%(582명)으로 나타났으며, 전문대학유형 전체수준에서 54.5%(201명), 4년제 대학유형 전체수준에서도 75.7%(381명)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은 41~50시간'인 경우 전문대학유형이 29.3%(108명)로 4년제 대학유형 16.5%(83명)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보였다($\chi^2=44.042$, $p<.001$).

<표 18> 대학유형별 첫 일자리 임금 및 근무시간 수준

첫 일자리		대학 유형(명(%))		N
		전문대학(2-3년제)	4년제 대학	
월평균 소득(임금) $\chi^2=43.601^{***}$	150만원 미만	163(44.2)	141(28.0)	304(34.9)
	150~200만원 미만	127(34.4)	170(33.8)	297(34.1)
	200~250만원 미만	56(15.2)	110(21.9)	166(19.0)
	250~300만원 미만	19(5.1)	43(8.5)	62(7.1)
	300만원 이상	4(1.1)	39(7.8)	43(4.9)
일주일(평균) 근무시간 $\chi^2=44.042^{***}$	15시간 이하	15(4.1)	10(2.0)	25(2.9)
	16~40시간	201(54.5)	381(75.7)	582(66.7)
	41~50시간	108(29.3)	83(16.5)	191(21.9)
	51~60시간	32(8.7)	22(4.4)	54(6.2)
	61시간 이상	13(3.5)	7(1.4)	20(2.3)

대학유형별에 따른 월평균 소득(임금)은 4년제 대학유형(M=176.57, SD=71.03)이 전문대학유형(M=151.34, SD=55.08) 보다 25.23만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5.91, p<.001). 일주일 평균 근무 시간은 전문대학유형(M=42.95, SD=11.03)이 4년제 대학유형(M=40.83, SD=9.43) 보다 2.12시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2.09, p<.01). 이는 전문대학유형이 평균 소득이 더 적으며 평균 근무시간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표 19> 대학유형별 첫 번째 일자리 소득 차이 검증

구분	N	M	SD	t
월평균 소득(임금)(만원)	전문대학(2-3년제)	369	151.34	55.08
	4년제 대학	503	176.57	71.03
				-5.91***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	전문대학(2-3년제)	369	42.95	11.03
	4년제 대학	503	40.83	9.43
				2.99**

3. 청년고용정책

청년고용정책에 대해 대학유형별 관심도 및 인지도, 취업도움, 거주지별, 연령별 관심도, 고용대책참여도, 고용문제 해결방안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0>에서 <표 25> 참조).

가. 청년층 고용대책 관심도 및 인지도

(1) 청년층 고용대책 관심도

(가) 대학유형별 고용대책 관심과 도움 차이 분석

청년층 전체 대상으로 대학유형별 고용대책 관심 및 인지도에 대한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표 20> 참조) 고용대책 관심도는 4년제 대학유형(M=2.70, SD=1.04)이 전문대학유형(M=2.59, SD=.98)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38, p<.05). 고용대책 인지도 역시 4년제 대학유형(M=2.85, SD=.63)이 전문대학유형(M=2.75, SD=.62)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75, p<.01). 전반적으로 정부고용대책에 대한 청년층 관심도와 인지도는 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효율성 방안이 요구된다.

청년층 고용대책 취업지원 분야 참여로 취업도움 정도에 대해 대학유형별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취업정보제공'참여로 취업도움 정도는 4년제 대학유형(M=3.04, SD=.86)이 전문대학유형(M=2.76, SD=.62)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03, p<.05). '취업지원관제도',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모두 4년제 대학유형 취업 도움 정도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청년층 정부고용대책 관심 및 인지도, 취업도움정도의 평균이 보통

또는 보통이하로 낮게 나타나 실질적인 취업도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20> 대학유형별 고용대책 관심도 및 인지도, 취업도움 차이 검증

구분	N	M	SD	t
고용대책 관심도	전문대학(2-3년제)	777	2.59	.98
	4년제 대학	1307	2.70	1.04
				-2.38*
고용대책 인지도	전문대학(2-3년제)	451	2.75	.62
	4년제 대학	793	2.85	.63
				-2.75**
취업정보제공	전문대학(2-3년제)	62	2.76	.97
	4년제 대학	132	3.04	.86
				-2.03*
취업지원관제도	전문대학(2-3년제)	26	2.81	1.10
	4년제 대학	60	3.00	.92
				-839
고용센터	전문대학(2-3년제)	67	2.91	1.01
	4년제 대학	103	3.15	.86
				-1.628
취업성공패키지	전문대학(2-3년제)	20	2.95	.89
	4년제 대학	30	3.03	1.16
				-272

(나) 거주지역별 고용대책 관심도 분석

거주지역별로 고용대책 관심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1>과 같다. 고용대책의 거주지역별 관심도는 경남(M=3.10, SD=1.0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서울특별시(M=2.34, SD=1.05)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chi^2=235.28$, p<.001). 이는 경남, 울산, 부산 지역의 관심이 높게 나타난 원인으로 민감한 지역의 경제상황에 따른 지원과 정책방향에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1> 거주지역별 고용대책 관심도 교차분석

지역	전혀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	보통이다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있다	N	M	SD
서울특별시	101(27.3)	93(25.1)	133(35.9)	35(9.5)	8(2.2)	370(100.0)	2.34	1.05
부산광역시	20(10.3)	41(21.1)	81(41.8)	45(23.2)	7(3.6)	194(100.0)	2.89	1.00
대구광역시	16(19.0)	20(23.8)	32(38.1)	16(19.0)	0(0.0)	84(100.0)	2.57	1.01
대전광역시	4(6.8)	22(37.3)	27(45.8)	5(8.5)	1(1.7)	59(100.0)	2.61	0.81
인천광역시	10(8.8)	17(14.9)	71(62.3)	13(11.4)	3(2.6)	114(100.0)	2.84	0.84
광주광역시	3(9.7)	12(38.7)	9(29.0)	7(22.6)	0(0.0)	31(100.0)	2.65	0.95
울산광역시	5(4.3)	15(13.0)	70(60.9)	25(21.7)	0(0.0)	115(100.0)	3.00	0.73
경기	93(17.2)	153(28.3)	194(35.9)	86(15.9)	14(2.6)	540(100.0)	2.58	1.03
강원	1(2.9)	12(34.3)	13(37.1)	9(25.7)	0(0.0)	35(100.0)	2.86	0.85
충북	5(6.9)	25(34.7)	32(44.4)	8(11.1)	2(2.8)	72(100.0)	2.68	0.87

지역	전혀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	보통이다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있다	N	M	SD
충남	11(14.3)	26(33.8)	22(28.6)	15(19.5)	2(2.6)	77(100.0)	2.57	1.12
전북	14(22.6)	16(25.8)	19(30.6)	12(19.4)	1(1.6)	62(100.0)	2.52	1.10
전남	9(15.5)	12(20.7)	23(39.7)	10(17.2)	4(6.9)	58(100.0)	2.79	1.12
경북	14(13.2)	32(30.2)	39(36.8)	20(18.9)	1(0.9)	106(100.0)	2.64	0.97
경남	11(7.2)	20(13.2)	69(45.4)	41(27.0)	10(6.6)	152(100.0)	3.10	1.03
제주도	1(11.1)	1(11.1)	6(66.7)	1(11.1)	0(0.0)	9(100.0)	2.78	0.83
세종	0(0.0)	3(50.0)	1(16.7)	1(16.7)	1(16.7)	6(100.0)	3.00	1.26
전체	318(15.3)	520(25.0)	841(40.4)	349(16.7)	54(2.6)	2084(100.0)	2.60	1.02

$\chi^2=235.28^{***}$

(다) 연령별 고용대책 관심도

<표 22>에 나타난 연령별 고용대책 관심도는 15-24세(M=2.90, SD=1.0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34세(M=2.41, SD=.95)는 상대적 관심도가 낮게 나타났다(F=43.06, p<.001). 연령별 관심도 분석은 전체적(M=2.66, SD=1.02)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22> 연령별 고용대책 관심도 차이 분석

고용대책 관심도	N	M	SD	F	Scheffe 검증
연령별	15-24세	695	2.90	1.00	43.06***
	25-29세	640	2.69	1.04	
	30-34세	748	2.41	.95	30-34세<25-29세<15-24세
전체	2083	2.66	1.02		

(라) 대학유형별 고용대책 무관심이유

<표 23>에 나타난 결과에서 청년층 고용대책에 대해 무관심한 이유는 전문대학유형 전체수준에서 '실질적 도움이 안 될 것임' 29.1%(95명)이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4년제 대학유형 전체수준에서는 '취업에 관심이 없음' 29.5%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문대학유형과 4년제 대학유형의 고용대책 무관심 순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23> 대학유형별 청년층 고용대책 무관심 이유

고용정책	대학 유형(명(%))	N		
			전문대학(2-3년제)	4년제 대학
고용대책 무관심 이유	취업에 관심이 없음	85(26.1)	151(29.5)	236(28.2)
	스스로 취업준비	64(19.6)	96(18.8)	160(19.1)
	정부의 홍보 부족	14(4.3)	31(6.1)	45(5.4)
	내용이 너무 어려움	8(2.5)	12(2.3)	20(2.4)

$\chi^2=4.843$

고용정책	대학 유형(명(%))	N	
			전문대학(2-3년제)
실질적 도움이 안 될 것임	95(29.1)	132(25.8)	227(27.1)
나에게 해당되는 정책 없음	56(17.2)	88(17.2)	144(17.2)

(2) 청년층 고용대책 인지도

청년층 고용대책 인지도를 취업 지원,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청년취업인턴제, 해외취업지원, 창업지원 분야에 대해 대학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24>와 같다. 취업지원 분야에 대해 들어본 경험 비율은 전체수준에서 '고용센터' 60.1%, '취업정보제공' 51.2%, '취업지원관 제도' 35.4%, '취업 성공패키지' 29.1%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유형과 4년제 대학유형의 취업분야 인지도 순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취업지원관제도'에서 4년제 대학유형이 37.5%로 전문대학유형 31.9%로 인지도에서 다른 하위요인보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7.940$, p<.05).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분야에 대해 들어본 경험은 전체수준에서 '청년취업 아카데미' 31.5%, '내일배움카드' 31.0%, '일학습 병행' 21.2%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유형과 4년제 대학유형의 취업분야 인지도에 대한 순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일학습 병행'에서 4년제 대학유형이 23.0%로 전문대학유형 18.0%로 인지도에서 다른 하위요인보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8.624$, p<.05).

'청년취업 인턴제' 요인은 전체수준에서 54.2%로 인지도를 보였으며, 4년제 대학유형 57.0%로 전문대학유형 49.5% 보다 높게 나타났다($\chi^2=12.347$, p<.01).

'해외취업지원(K-Move 등)' 분야는 전체수준에서 30.4%로 인지도를 보였으며, 4년제 대학유형 33.0%로 전문대학유형 26.1%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chi^2=12.145$, p<.01).

'창업지원' 분야는 전체수준에서 31.2%로 인지도를 보였으며, 4년제 대학유형 33.7%로 전문대학유형 27.2%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chi^2=10.948$, p<.01).

취업지원 분야에 대한 참여도는 전체적으로 20% 미만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지원 분야는 '취업정보제공'이 1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분야는 전체수준에서 '내일배움카드' 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 고용대책 참여도는 '청년취업 인턴제' 5.5%, '창업지원' 3.2%, '해외취업지원' 2.5%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유형과 4년제 대학유형이 고용대책에 참여한 비율이 차지한 순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에 대한 고용대책 참여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대학유형별 고용대책 인지 및 참여도 분석

청년층 고용대책 들어본 경험	대학 유형(명(%))	N=2084			
			전문대학(2-3년제)	4년제 대학	
취업 지원	취업정보제공	$\chi^2=2.998$ 인지 $\chi^2=1.624$ 참여	383(49.3) 62(16.2)	683(52.3) 132(19.3)	1066(51.2) 194(18.2)

청년층 고용대책 들어본 경험			대학 유형(명(%))		N=2084
			전문대학(2-3년제)	4년제 대학	
취업지원관 제도	$\chi^2=7.940^*$ 인지	248(31.9)	490(37.5)	738(35.4)	
	$\chi^2=4.96$ 참여	26(10.5)	60(12.2)	86(11.7)	
고용센터	$\chi^2=1.635$ 인지	456(58.7)	796(60.9)	1252(60.1)	
	$\chi^2=1.318$ 참여	67(14.7)	103(12.9)	170(13.6)	
취업성공패키지	$\chi^2=3.589$ 인지	211(27.2)	396(30.3)	607(29.1)	
	$\chi^2=6.59$ 참여	20(9.5)	30(7.6)	50(8.2)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내일배움카드	$\chi^2=4.554$ 인지	222(28.6)	423(32.4)	645(31.0)
		$\chi^2=1.35$ 참여	23(10.4)	40(9.5)	63(9.8)
청년취업 아카데미	$\chi^2=3.882$ 인지	228(29.3)	428(32.7)	656(31.5)	
	$\chi^2=1.80$ 참여	12(5.3)	26(6.1)	38(5.8)	
일학습 병행	$\chi^2=8.624^*$ 인지	140(18.0)	301(23.0)	441(21.2)	
	$\chi^2=3.83$ 참여	8(5.7)	22(7.3)	30(6.8)	
청년취업 인턴제	$\chi^2=12.347^{**}$ 인지	385(49.5)	745(57.0)	1130(54.2)	
	$\chi^2=1.995$ 참여	16(4.2)	46(6.2)	62(5.5)	
해외취업지원(K-Move 등)	$\chi^2=12.145^{**}$ 인지	203(26.1)	431(33.0)	634(30.4)	
	$\chi^2=2.438$ 참여	8(3.9)	8(1.9)	16(2.5)	
창업 지원(청년창업펀드 조성, 판로지원, 청년전문창업자금융 확대 등)	$\chi^2=10.948^{**}$ 인지	211(27.2)	440(33.7)	651(31.2)	
	$\chi^2=1.769$ 참여	4(1.9)	17(3.9)	21(3.2)	

나. 청년층 고용문제 해결방안

청년층 취업난의 주요 원인과 고용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1순위, 2순위 응답 빈도를 합하여 대학유형별로 다중응답 분석한 결과는 <표 25>와 같다. 청년층 취업난의 주요 원인 분석결과는 전체 수준에서 1순위 '양질의 일자리 부족' 31.2%(123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순위 '청년층의 취업 눈높이' 14.4%(595명), 그 다음으로 '높은 대학 진학률과 대졸자배출' 14.4%(595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유형별로 살펴보면 전문대학유형 전체수준에서 1순위 '양질의 일자리 부족' 31.5%, 2순위 '청년층의 취업 눈높이' 15.3%, 그 다음으로 '높은 대학 진학률과 대졸자배출' 12.6% 순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유형 전체수준에서 1순위 '양질의 일자리 부족' 31.1%, 2순위 '높은 대학 진학률과 대졸자배출' 14.0%, 그 다음으로 '청년층의 취업 눈높이' 13.8% 순으로 나타나 전문대학유형과 2, 3순위가 다른 결과로 문제원인에 대한 우선순위에 시각차를 보였다.

청년층 고용문제 해결방안 분석결과는 전체수준에서 1순위 '중소기업의 일자리 질 개선'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순위 '대기업 일자리 창출 유도' 26.2%, 그 다음으로 '직업교육의 강화' 11.2%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유형별로 살펴보면 전문대학유형 전체수준과 4년제 대학유형 전체수준에서 순위는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표 25> 청년층 대학유형별 취업난 원인 및 해결방안

고용대책		대학 유형(명(%))		N=2084
		전문대학(2-3년제)	4년제 대학	
청년층 취업난의 주요 원인 (1,2순위 합)	양질의 일자리 부족	486(31.5)	807(31.1)	1293(31.2)
	중고형자의 늦어진 퇴직시기	173(11.2)	283(10.9)	456(11.0)
	높은 대학 진학률과 대졸자배출	195(12.6)	365(14.0)	560(13.5)
	청년층의 직무능력 부족	105(6.8)	145(5.6)	250(6.0)
	청년층의 취업 눈높이	236(15.3)	359(13.8)	595(14.4)
	취업과 괴리된 교육	99(6.4)	185(7.1)	284(6.9)
	취업 지원 서비스의 부실	70(4.5)	108(4.2)	178(4.3)
고용문제해결 가장 적절한 방법 (1, 2순위 합)	경제성장 둔화와 산업체질의 변화 등 외부요인	179(11.6)	347(13.4)	526(12.7)
	대기업 일자리 창출 유도	389(25.1)	699(26.9)	1088(26.2)
	중소기업의 일자리 질 개선	508(32.8)	824(31.7)	1332(32.1)
	기존 근로자의 일자리 나누기	101(6.5)	197(7.6)	298(7.2)
	과도한 대학진학 억제	147(9.5)	252(9.7)	399(9.6)
	직업교육의 강화	198(12.8)	266(10.2)	464(11.2)
	청년층 구직자 소득 보장	143(9.2)	253(9.7)	396(9.5)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시 진로지도	62(4.0)	107(4.1)	169(4.1)	

4. 청년층 주관적 인식 관계

청년층 대학유형별 주관적 인식의 차이, 취업만족도가 청년활력의 희망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인식 하위요인이 청년활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6> ~ <표 28> 참조).

가. 대학유형별 청년층 주관적 인식의 차이

대학유형별로 다른 청년층 주관적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6>과 같다. 청년활력지수의 5개 하위 요인 중 '연애 및 결혼'과 '희망 일자리' 2개 요인에서 대학유형별로 청년활력지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사회인식의 2개 하위 요인은 대학유형별로 따른 한국사회인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 2개의 하위 요인은 '공정적 관계' 요인에서 대학유형별로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26$, $p<.05$).

청년활력지수 전체에서는 4년제 대학유형의 평균이 전문대학유형보다 높았다($t=-2.31$, $p<.05$). 이는 4년제 대학유형이 전문대학유형에 비해 청년활력을 높이는 방식이 더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청년활력지수의 하위요인 중에는 '희망 일자리' 요인이 전문대학유형(M=3.27, SD=.83)과 4년제 대학유형(M=3.37, SD=.82)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대학유형이 원하는 일자리에 대한 활력지수가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존감 전체에서는 4년제 대학유형(M=3.70, SD=.62)이 전문대학유형(M=3.63, SD=.55)보다 높게 나타나($t=-2.47, p<.05$), 비교적 '자기긍정', '유능존재', '부정극복' 인식에 대해 주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6> 대학유형별 청년층 주관적 인식에 대한 차이 검증

구분	N	M	SD	t	
청년활력	전문대학(2-3년제)	777	3.33	0.68	-2.31*
	4년제 대학	1307	3.40	0.68	
(인간관계)	전문대학(2-3년제)	777	3.64	0.72	-1.59
	4년제 대학	1307	3.69	0.74	
(연애 및 결혼)	전문대학(2-3년제)	777	3.39	0.83	-2.19*
	4년제 대학	1307	3.47	0.84	
(희망 일자리)	전문대학(2-3년제)	777	3.27	0.83	-2.55*
	4년제 대학	1307	3.37	0.82	
(정주여건)	전문대학(2-3년제)	777	3.14	0.91	-1.86
	4년제 대학	1307	3.22	0.87	
(자녀양육)	전문대학(2-3년제)	777	3.20	0.90	-1.22
	4년제 대학	1307	3.25	0.89	
한국사회인식	전문대학(2-3년제)	777	3.05	0.61	-.49
	4년제 대학	1307	3.06	0.64	
(노력기대)	전문대학(2-3년제)	777	3.23	0.64	-.97
	4년제 대학	1307	3.26	0.67	
(사회만족)	전문대학(2-3년제)	777	2.75	0.75	.32
	4년제 대학	1307	2.74	0.76	
자존감	전문대학(2-3년제)	777	3.63	0.55	-2.47*
	4년제 대학	1307	3.70	0.62	
(자기긍정)	전문대학(2-3년제)	777	3.42	0.64	-2.72**
	4년제 대학	1307	3.50	0.66	
(유능존재)	전문대학(2-3년제)	777	3.51	0.72	-2.21*
	4년제 대학	1307	3.59	0.74	
(부정극복)	전문대학(2-3년제)	777	3.83	0.66	-2.42*
	4년제 대학	1307	3.90	0.70	
사회적지지	전문대학(2-3년제)	777	3.63	0.46	-1.65
	4년제 대학	1307	3.67	0.52	
(긍정적관계)	전문대학(2-3년제)	777	3.45	0.58	-2.26*
	4년제 대학	1307	3.51	0.60	
(갈등관계)	전문대학(2-3년제)	777	2.14	0.62	.94
	4년제 대학	1307	2.12	0.67	

나. 대학유형별 취업만족도가 청년활력지수의 희망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청년활력지수의 희망일자리에 대하여 조직몰입도와 요인별 직무만족도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표 27>과 같다.

청년활력지수의 희망일자리를 설명하는 변인은 전체수준에서 요인별 직무만족도($\beta=.20, p<.001$), 조직몰입도($\beta=.19, p<.001$) 순서로 나타났다. 즉 요인별 직무만족도, 조직몰입도가 높을수록 청년활력지수의 희망일자리 요인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활력지수 희망일자리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15%로 나타났다($F=58.61, p<.001$).

전문대학유형 수준에서는 요인별 직무만족도($\beta=.17, p<.01$), 조직몰입도($\beta=.14, p<.05$)의 순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유형 수준에서는 조직몰입도($\beta=.24, p<.001$), 요인별 직무만족도($\beta=.21, p<.001$) 순서로 나타났다. 즉 전문대학유형은 요인별 직무만족도, 4년제 대학유형은 조직몰입도가 청년활력지수 희망일자리에 영향력을 미치는 취업만족도 우선 순위로 나타나 대학유형별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7> 조직몰입, 직무만족도, 요인별 직무만족도가 청년활력(희망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전문대학(2-3년제) n=439			4년제 대학 n=600			전체 n=1039		
	β	S.E	t	β	S.E	t	β	S.E	t
조직몰입도	.14	.09	2.04*	.24	.08	3.96***	0.19	0.06	4.31***
직무만족도	.10	.10	1.52	-.03	.09	-.49	0.03	0.06	0.70
요인별 직무만족도	.17	.11	2.76**	.21	.10	3.69***	0.20	0.07	4.73***
설명력(R ²)	.12			.16			.15		
F	20.50***			36.97***			58.61***		

다. 청년 주관적 인식의 사회인식, 자존감, 사회적지지 청년활력에 미치는 영향

<표 28>과 같이 청년층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한국사회인식과 자존감,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이 청년활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청년활력에 대하여 사회인식 하위요인 2개와 자존감 하위요인 2개,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 2개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대학유형별 한국사회인식과 자존감, 사회적지지 하위요인이 청년활력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전문대학(2-3년제) n=777			4년제 대학 n=1304			전체 n=2081		
	β	S.E	t	β	S.E	t	β	S.E	t
한국 노력기대	0.36	0.04	9.76***	0.26	0.03	8.88***	0.30	0.02	12.99***
사회인식 사회만족	0.09	0.03	2.54**	0.15	0.02	5.40***	0.13	0.02	5.81***
자존감 자기긍정	0.11	0.04	3.12**	0.11	0.03	3.94***	0.11	0.02	5.10***

독립변인	전문대학(2-3년제) n=777			4년제 대학 n=1304			전체 n=2081		
	β	SE	t	β	SE	t	β	SE	t
유능존재	0.08	0.03	2.14*	0.13	0.03	4.08***	0.11	0.02	4.48***
부정극복	0.04	0.04	1.04	0.03	0.03	0.93	0.04	0.03	1.44
사회적 긍정적관계	0.17	0.04	5.28***	0.19	0.03	6.96***	0.19	0.02	8.80***
저 지 갈등관계	-0.10	0.03	-3.02**	-0.03	0.03	-1.16	-0.06	0.02	-2.74**
설명력(R ²)	.42			.34			.37		
F	79.27***			96.85***			174.82***		

<표 28>을 살펴보면, 전체수준에서 청년활력을 설명하는 변인은 노력기대감($\beta=.30, p<.001$), 긍정적관계($\beta=.19, p<.001$), 사회만족감($\beta=.13, p<.001$), 자기긍정($\beta=.11, p<.001$), 유능존재($\beta=.11, p<.001$), 갈등관계($\beta=-.06, p<.01$)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년층 한국사회 인식의 노력기대감, 사회만족감과 자존감의 자기긍정, 유능존재, 사회적지지의 긍정적관계 요인이 높을수록 청년활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지지 중 갈등관계가 낮을수록 청년활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활력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37%로 나타났다($F=174.82, p<.001$).

전문대학유형 수준에서는 노력기대감($\beta=.36, p<.001$), 긍정적관계($\beta=.17, p<.001$), 자기긍정($\beta=.11, p<.01$)의 순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79.27, p<.001$). 4년제 대학유형 수준에서는 노력기대감($\beta=.26, p<.001$), 긍정적관계($\beta=.19, p<.001$), 사회만족감($\beta=.15, p<.001$) 순으로 나타났다($F=96.85, p<.001$). 즉 전문대학유형과 4년제 대학유형의 청년활력지수에 영향력을 미치는 1, 2순위는 같다. 다만 3순위에서는 전문대학유형은 자기긍정이, 4년제 대학유형은 사회만족감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영향력 차이는 전문대학유형에게는 자신에 대한 만족감, 강점을 통해 자기 긍정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며, 4년제 대학유형에게는 청년세대의 기회, 사회로부터의 관심과 지원, 삶의 질을 통한 사회만족감이 요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청년층의 인간관계, 연애 및 결혼, 희망 일자리, 정주여건, 자녀양육 등 전반적 활력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면 공정한 대가와 사회적 성취를 위한 기회가 있다는 기대를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인식과 주위 사람들과의 상호존중, 열려, 도움, 소통 등 긍정적인 상호교류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는 한국노동패널(KLIPS)의 19차년도(2016) 자료를 기준으로 개인, 부가조사(청년층) 2,084명의 최종 분석 대상자 자료를 바탕으로 SPSS 2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학유형별 전문

대학유형과 4년 대학유형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χ^2), t분석, 일원배치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조사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취업준비 시작시기, 입사지원, 면접횟수와 취업의사에서 희망일자리 규모와 희망월평균급에서 대학유형별로 전문대학유형과 4년제 대학유형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취업준비에는 취업준비 시작시기, 입사지원, 면접 횟수에서 대학유형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준비 시작 시기는 전문대학유형이 졸업 이후(47.8%)에 4년제 대학유형은 재학 중(55.1%)에 하는 것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전문대학유형의 재학 중 취업준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취업지원을 위한 입사지원과 면접에도 대학유형별 차이가 나타났다. 입사지원과 면접 평균 횟수 모두 4년제 대학유형이 전문대학유형보다 평균 지원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4년제 대학유형 간의 취업 경쟁률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취업준비를 위한 경험과 비용측면에서 대학유형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를 위해 전문대학유형은 '각종 자격증 취득', '입사면접 준비', '취업관련 정보수집' 순으로 취업준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비용지출은 '해외어학연수 준비 및 연수비용', '외국어 능력개발', '각종 자격증 취득' 순으로 비용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유형은 '입사면접 준비', '취업관련 정보수집', '외국어 능력개발' 순으로 취업준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비용지출은 전문대학유형과 동일한 순위로 비용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금액 측면에서는 전문대학유형은 '외국어 능력개발'에서 4년제 대학유형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이며, 4년제 대학유형은 '해외어학연수 준비 및 연수비용'과 '각종 자격증 취득' 비용에서 전문대학유형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유형별로 이직고려 중인 자를 포함한 미취업자 취업의사를 살펴보면 전문대학유형은 '중소기업 취업의사', '시간제 일자리 취업의사', '창의의사' 순으로 나타났으며 4년제 대학유형은 '중소기업 취업의사', '해외 취업의사', '시간제 일자리 취업의사' 순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자 희망 일자리규모는 전문대학유형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순이었으며 4년제 대학유형은 '중견기업', '대기업', '국가기관(공무원)'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시 고려사항은 전문대학유형은 '여가나 자유시간 보장', '고용의 안정성', '원하는 것 살 수 있는 월급' 순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유형은 '고용의 안정성', '여가나 자유시간 보장', '직업의 강대성' 순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자 희망 일자리 수입 월평균은 4년제 대학유형 평균이 255.37만원으로 전문대학유형 228.03만원 보다 27.34만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첫 번째 일자리 유지형태 분석결과 대학유형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이후 미취업자는 4년제 대학유형이 전문대학유형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일자리 수 평균은 전문대학유형이 더 높았다. 또한 월평균 소득은 4년제 대학유형이 높게 나타났고, 근무시간은 전문대학유형

이 더 많았다.

첫째, 졸업이후 미취업자가 4년제 대학유형은 20.5%로 전문대학유형 11.7%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지속적으로 높은 청년실업에 대한 반증으로 볼 수 있으며, 랜덤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학유형별로 일자리 수 평균을 보면 4년제 대학유형이 1.58개로 전문대학유형이 1.96개 보다 0.38개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 형태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전문대학유형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근무 기업형태는 대학유형별로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가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모두 각각 88.1%와 76.1%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정부부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업' 형태에서 전문대학 0.89%에 비해 4년제 대학 6.4%의 분포가 더 많게 나타나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입사조건에서 전문대학유형이 배제되거나 경쟁에서 불리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월평균 소득(임금)은 4년제 대학유형이 평균 176.57만원으로 전문대학유형 151.34만원 보다 25.23만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전문대학유형이 평균 42.95시간으로 4년제 대학유형 평균 40.83시간 보다 2.12시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대학유형이 평균 소득이 더 적으며 평균 근무시간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청년 고용정책 분석결과 대학유형별, 거주지역별, 연령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청년 고용정책의 관심도가 낮게 나타났다. 청년층 고용문제 해결방안에는 대학유형별로 차이가 없었다.

첫째, 청년 고용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4년제 대학유형(M=2.70)이 전문대학유형(M=2.5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정도에서도 4년제 대학유형(M=2.85)이 전문대학유형(M=2.7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도움 정도는 취업정보제공 요인에서 4년제 대학유형(M=3.04)이 전문대학유형(M=2.76) 보다 유의미한 차이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고용대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 인지, 취업정도는 전체적으로 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세부적인 지원 및 취업을 준비하는 교육현장에서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거주지역별 청년고용대책 관심도는 경남(M=3.1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울(M=2.34)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경남, 울산, 부산 지역의 관심도가 높게 나타난 원인으로 민감한 지역의 경제 상황에 따른 지원과 정책방향에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15-24세(M=2.90)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34세(M=2.41)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전체적(M=2.66)으로 관심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청년 고용대책 취업지원 하위요인 취업지원제도 측면에서 들어본 경험은 '고용센터' 60.1%, '취업정보제공' 51.2%, '취업지원관 제도' 35.4%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분야에 대해 들어본 경험은 '청년취업 아카데미' 31.5%, '내일배움카드' 31.0%, '일학습 병행' 21.2%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청년취업 인턴제',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K-Move 등)'의 인지도 순으로 '취업지원관제도'와 '일학습 병행'과 함께 4년제 대학유형이 전문대학유형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도는 전체적으로 20%미만으로 매우 낮았으며 '취업정

보제공' 참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유형별 참여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청년층 취업난의 주요 원인 분석결과는 대학유형별로 모두 1순위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고용문제 해결방안 분석결과는 전체수준에서 1순위 '중소기업의 일자리 질 개선', 2순위 '대기업 일자리 창출 유도', 그 다음으로 '직업교육의 강화' 11.2%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유형별로 순위는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청년층 취업난에 대한 해결방안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대한 해소와 중소기업의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대책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청년층 주관적 인식관계에 대해 대학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청년활력지수와 자존감에서 4년제 대학유형의 주관적인식이 더 높았다. 취업만족도가 청년활력지수의 희망일자리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문대학유형은 요인별 직무만족도, 4년제 대학유형은 조직몰입도가 우선 순위로 나타났다.

첫째, 대학유형별 청년층 주관적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청년활력지수와 하위 요인 '연애 및 결혼'과 '희망 일자리' 요인, 자존감과 하위요인 '자기긍정', '유능존재', '부정극복' 요인,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 관계' 요인에서 대학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4년제 대학유형이 전문대학유형에 비해 청년활력지수를 높이는 방식이 더 다양하며, 전문대학유형이 원하는 일자리에 대한 청년활력지수가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4년제 대학유형의 자존감과 사회적 지지의 '긍정관계'가 전문대학유형보다 주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청년활력지수의 희망일자리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취업만족도는 조직몰입도와 요인별 직무만족도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유형은 요인별 직무만족도, 4년제 대학유형은 조직몰입도가 우선 순위로 나타나 대학유형별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청년층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청년활력을 설명하는 변인은 전문대학유형 수준에서는 노력기대감, 긍정적관계, 자기긍정의 순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유형 수준에서는 노력기대감, 긍정적관계, 사회만족감 순으로 나타났다. 3순위에서 전문대학유형은 자기긍정, 4년제 대학유형은 사회만족감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영향력 차이는 전문대학유형에게는 자신에 대한 만족감, 강점을 통해 자기 긍정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며, 4년제 대학유형에게는 청년세대의 기회, 사회로부터의 관심과 지원, 삶의 질을 통한 사회만족감이 요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청년층의 인간관계, 연애 및 결혼, 희망 일자리, 정주여건, 자녀양육 등 전반적 활력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면 긍정한 대가와 사회적 성취를 위한 기회가 있다는 기대를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인식과 주위 사람들과의 상호존중, 염려, 도움, 소통 등 긍정적인 상호교류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5] 종합적으로 취업준비와 첫 번째 일자리, 고용대책에서 대학유형별 차이는 주관적 인식에서 청년활력지수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취업의사에서 미취업자 희망 일자리 수입 월평균은 4년제 대학유형이 평균 255.37만원으로 나타났으나, 첫 일자리에서의 월평균 소득은 176.57만원으로 78.8만원의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고용

대책에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지원 방향과는 달라 청년고용대책 인지와 참여가 낮은 것으로 보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 인식에서 청년활력지수의 희망일자리에 조직몰입도, 노력기대감, 긍정적 관계, 사회만족감이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게 하였다.

둘째, 전문대학유형의 미취업자 희망 일자리 수입 월평균과 첫 번째 일자리 월평균 소득에는 76.69만원의 차이를 보였으며 4년제 대학유형보다 낮았고, 근무시간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는 주관적 인식인 청년활력지수에 취업만족도에서 요인별 직무만족도, 노력기대감, 긍정적 관계, 자기공정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차원에서 일자리 경력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청년층은 졸업이후 일자리 개수가 평균 2개 이상을 경험한 비율이 40%를 넘으며 특히, 전문대학 유형은 50.5%로 여러 개의 일자리를 이 통하여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경우나 영세한 민간기업 경력, 아르바이트 등은 이직으로 경력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대해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경력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둘째, 청년활력지수를 높이기 위한 청년 생생지락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청년들 삶의 질적 만족을 위해 인간관계, 연애 및 결혼, 원하는 일자리, 주거문화 등 정주여건, 현재와 미래의 자녀양육 등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의 취업준비와 취업의사를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JOB STORY정책이 캠퍼페 또는 청년활력공간을 통해 마련되어야 한다. 청년들이 졸업이후에 취업을 시작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고 건강한 심신을 위해 휴식이 필요한 정주여건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는 JOB START정책이 노동복지와 근무환경을 개선할 통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의 일자리는 공정한 기회와 노력한 만큼 사회적 성취를 이루는 것을 통해 다시 후배와 후세대의 모델이 될 수 있어야 하며, 결혼 및 양육이 편안한 건전하고 균형 있는 삶의 미래를 설계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JOB SMART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그림 1] JOB 3S 청년 생생지락

[참고문헌]

김경범·이주연·노진원·권영태(2016). 『청년 취업자의 이직 준비 관련 요인』.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6(12), pp. 480-491.

박성재·반정호(2006). 『대졸 청년층 취업준비노력의 실태와 성과』. 한국인구학, 29(3), pp. 29-50.

백일우(2009). 『교육경제학』. 학지사. 서울

신선미·민무숙·권소영(2013). 『미취업 여성청년층의 현황과 고용정책 과제』. 취업진로연구, 3(2), pp. 41-63.

어윤경·김동일·정여주·이주영(2011). 『대학생용 취업준비행동 검사 개발 및 타당화』. 한국교육학연구, 17(3), pp.267-291.

윤미숙(2017). 『전문대학교 졸업예정자의 취업행동과 개인 및 조직 변인의 위계적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상호(2016).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이영민·이수영·임정연 (2014). 『대학생 선호직장의 취업 결정요인 분석』. 사회과학연구, 53(1), 337-374.

정범석·장화민(2014). 『국내 대학생의 취업태도 및 취업준비 비용에 관한 연구』, 경영과 정보연구, 33(4), pp.1-19.

조대연·두민영(2016). 『첫 일자리 만족도에 따른 대졸청년층 취업자의 유형 분류 및 특성 연구』. 기업교육연구, 18(10), pp. 29-56.

지계웅·한진영(2016). 『4년제 대학생들의 학년별 취업준비행동 비교연구』. 디지털 융합, 14(6), pp. 33-41.

최선미(2015). 『전문대학생의 취업준비활동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4), pp. 2556-2563.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팀(2017). 『17차년도 한국노동패널 통합설문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팀(2017). 『한국노동패널 17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일보(2017. 09. 12). 『활력 떨어지는 대한민국...경제활동참가율』, 청년층 OECD 최하위권, www.hankookilbo.com.